

한국, 말로만 '디지털 경제'... 실상은 아직도 '중후장대'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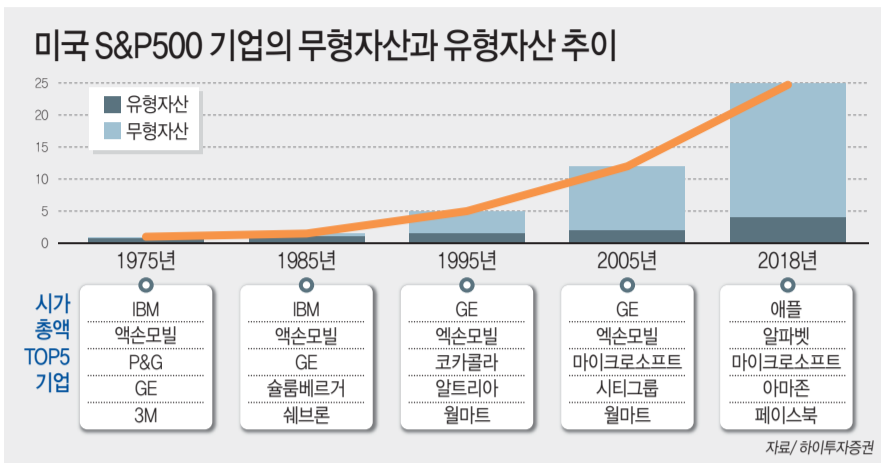
'93% vs 0.9%' 100배 격차... 무형자산 후진국의 '민낯'

아마존

네이버

(시가총액대비 무형자산 비중)

시총 1위 삼성도 무형자산 6.5%
韓, 고정투자 중 설비 비중 높아
"엔택트 대체로, 무형자산 고평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투자형태 재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엔택트(Untact·비대면) 산업의 부상은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고평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여전히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무형경제 시대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2위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은 약 6.5%, 4.4%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이 90%, 아마존이 93%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대표 기업의 무형자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S&P500, 무형경제 기업이 포진
미국은 2010년 이후부터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실제 높은 무형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1~5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기업의 시총 순위는 1995년 GE, 엑손모빌, 월마트 등 전통적 제조 생산 기업에서 2018년부터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무형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순위가 바뀌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80년대까지만해도 미국기업들의 유형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율이 1배가 안됐지만 1995년 2.1배, 2005년 4배,

2018년 5.3배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0년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부상하면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의 구조물 투자, 설비투자, 지적 생산물 투자 비중을 보면 구조물 투자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고, 설비투자는 기존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지적 생산물 투자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증권, 산업 등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엔택트 산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무형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높은 무형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 기업이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약 17% 하락했지만 FANG

위기업. 고정투자 중 설비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들어 고정투자 중 지적 생산물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을 보면 설비투자가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산업 구조상 조선, 철강, 화학, 정유 등 글로벌 부품망(Supply Chain)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국내 회계처리 관습상 무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계상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의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은 0.9%에 불과하고, 카카오는 18.1%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엔택트 시대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무형

자산 비중이 시총 대비 20%도 안된다

는 점은 회계상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한다"면서 "무형 경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형 경제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엔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투자형태가 무형자산, 지적 생산물 투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고,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무형경제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더욱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빅 5 병원'도 뚫렸다
병원發 집단감염 '비상'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수술장 일부 폐쇄, 긴급방역
용인강남병원서도 1명 확진

국내 '빅5' 병원과 국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원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빅5 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불안감이 커졌다.

19일 서울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오후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고, 이어 나머지 3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특히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명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처음 감염된 간호사는 지난 16~18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증상 발현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집에서 대기하다 18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방역 당국은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을 통해 접촉한 의료인 262명과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삼성서울병원뿐 아니라 경기 용인 강남병원에서는 방사전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은 외래환자 구역과 선별진료소 구역 등이 분리된 국민안심병원으로, 현재 병원 폐쇄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 31명 및 입원환자 171명에 대한 이동금지, 병원 직원 400명의 출근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병원 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세경·김현정 기자 seilee@

자세히 보면
보장의 차이가 보입니다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암 진단비 감액기간없이 100%보장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후,
소액암, 유사암 제외)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도
주계약 보장으로 보장범위 확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중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본 상품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 365. 6363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회제 2019-03796호 (2019.12.03) 준법감사인확인필 CS 19-12-10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

을 검색해보세요